

〈資 料〉

倭政下 定期刊行物 所在

國樂關係記事 (6)

東洋音樂研究所 資料室

◎ 目 次

〈朝 光〉

現代中國의 民俗學.....	차오·웨이광 (閔泳珪 譯)
----------------	-------------------

◎ 일러두기

- 이 글은 倭政下에서 刊行된 定期刊行物(신문·잡지)에 수록된 國樂關係記事의 轉載 六回分이다.
- 이번 輯에서는 月刊誌「朝光」을 대상으로 했다.
- 轉載에 있어 본래의 철자법과 띄어쓰기를 그대로 따랐다.
- 「朝光」, 서울: 경성조광, 1936(영인본, 서울학연사).

現代中國의 民俗學

차오·웨이광
閔 泳 珪 譯

譯者의 前書. 近時北京輔仁大學人類學博物館에 선 새로운 “Folklore Studies”의 創刊을보았다. 故시로코고르프教授의 遺稿, 「中國의 人種學的 考究」를 卷頭로하여, 召教授의 扶箕信仰에 關한 論考, J. 티일氏의 山東省一帶巫神治療俗信에 關한 調查. 錢教授의 「流行病과 護符에 關한 論稿 本誌의 主宰者인 M. 에더어教授의 雲南貴州地方의 佛敎說話에 關한 調查...等等 諸教授들의 苦心九作을 收輯하여 四六倍版의 堂堂한 體裁를이뤘거있다. 모나英文과 獨文으로 掲載되어있다. 생각하면, 事變以來로 中國의 史學界는 다른모든 學術界와 마찬가지로 休息狀態에 빠져, 一時的 盛況을 보이는 諸研究所며 學會의 報告出版物을 거이불수 없게된지. 오래였는데, 이번이 創刊된 同誌는 如上의 意味로 보드라도 一層의 關心을 갖게 하는 것이다. 就中여기에 譯出하려는 召氏의 論稿는 近代中國의 民俗學界가 밝어온 過去業績을 詳述한點, 斯學界의 消息을 알기에 緊要할뿐더러, 이것을 朝光紙를 빌려서 紹介하는 것도 含意가 있을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삼가 民俗學誌의 創刊에 對해서 敬意를 表하는바다.

(四月 十六日, 東京)

一. 思想的 背景

中國의 民俗이 처음으로 科學的 研究的 對象이 되기는 國立北京大學에서이다. 官學에 依存한 中國 民俗의 調查研究 經過여 그 終幕을 理解하자면, 먼저 그들이 出發한 當時의 精神의 源泉을 알아야 할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있던 諸缺陷이며 失敗原因을 具知하여 두는 것이 必要하다.

民國政府가 樹立되면서 數年間, 所謂新文化運動이라는 것이 라는 것이, 胡適, 陳獨秀, 錢玄同, 周作人, 劉復 等 國立北京大學의 數三教授들로 依해서 提唱되었다. 그것은 곧 新文藝觀을 어떻게

改革하고 引導해가든가를 알리爲해서 胡適이 지은 「中國의 文藝復興」에 이 新文化運動의 性質을 定義한 旬節이 있기에 이것을 引用키로한다. 「첫째로 그것은 古來의 古典의 文藝를 버리고 民間에 산言語에서 新文藝를 버리고 民間에 산言語에서 新文藝를 建設하자는 自覺運動이었고, 둘째로 그것은 古來의 傳統文化가 가진 모든 觀念이나 制度에 對한 自覺의 抗拒, 다시 말하면 舊勢力의 걸고부더 個男女의 自覺의 해방을 표방한 운동이었다. 그것은 理性對傳統, 자유對 권위, 그리고 삶의 榮光과 人類의 價値에 對한 抑壓에 對해서 이겨진 운동이었다. 끝으로 그것은 새로운 史의 批判이며 研究方法으로 過去文化를 찾아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依해서, 引導된 것인데, 이러한 意味에서 본다면, 그것은 또한 一종의 휴머니스트 運動이었다고도 볼수 있는 것이다.

이 運動의 核심案엔 두가지 顯著한 主線이 보이니, 곧 新文藝를 創造하는 것이고, 社會개조와 함께 個個 자유의 特권을 強調한 點이다. 이 運動은 實로 民俗研究의 母體가 되었다. 아들이 母體에 게서 보는바보다 그렇게 크게 다음을 期待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境遇로 볼지라도 그 出發期에 있어서 母子는 實로 相類一體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國立北京大學에서 시작된 民俗研究事業은 먼저 中國 民謠의 調査案으로부터 發端되었다. 이 事業의 開拓者들은 一九一八年에 民謠의 徵集을 始作했고, 두해가 지난뒤에 「歌謠研究會」를 組織했고, 이어서 一九二二年에 「歌謠週刊」을 創刊하였다.

週刊 創刊號에 실은 編輯者의 發刊詞는 그 趣旨와 目的을 明示하여 同人들에게 많은 感銘을 주었다. 「民謠徵集의 目的엔 두가지가 있다. 學術的인 것과, 文藝的인 것과이다. 우리는 믿는바어니와, 民俗의 調查研究는 現中國에 가장 必要한 일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아주 한 사람의 學者도 이에 關해서 注意를 주어본이가 없다. 그러므로 制限된 小數 同人들의 힘이나, 才力과 誠意와 努力을 다해서 이에 獻身할 으면 아니된다. 적으나마 우리는 當事者들에게 有形的 援助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밖에 一般人의 關心을 이에 이끌것게 努力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全國의 民謠를 專門研究의 方途에 準해서 徵集하고 印刷에 부치고자한다. 이것이 곧 우리의 最初目的이다. 이들 資料에서 우리는 다시 文學批判의 빛에 비춰서 그중에 優秀한 者를 精選하여 國民歌謠選을 編

纂코자한다. 기도·비타-레는말한다. 「民謠에實據하여 該民族의實感우에서서 비로서새로운民族詩는提供된다」라고. 그러므로 이事業은 한민족안에 감춰져있는빛을發明해줄뿐만아니라 또한民族詩의發展을促進시켜주는것도되는것이다.」

新文化運動의 提起者들의 主旨에초차서民謠의研究調査는 먼저 文學用語의革新을爲한 目標을完成하잖으면아니되었다. 그들은 中國의古語란 이이死語로化하고國民의山思想이며 感靑을表現키가 不可能한것인것을 功實하게느꼈다. 그들은 現在이마에사는國民의 山言語인 自話의使用을바랬다. 그래서, 그들은 常用語로적힌小説을 가장아름다운文章으로보았고, 民謠體를보기를 가장自然스런詩라하였다. 이를先進者들의側에서볼때 民俗研究란 其實은 斯學과는 關係가없는目的을完成코자한 한가지手段에不過하였던것이다. 다시말하면, 갈바를잃은 民族詩의體軀에 새生命을 齎來하자든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다른方面에서民俗研究에從來하든 當事者들間에있어서도 亦是그러하였다. 一九二三年에國立北京大學의 數한條目으로보아서 證明되듯이, 民俗의調査研究를 社會개혁의目的으로發起한것이다. 그들은 全國民의社會狀況을알고자하였다. 그리고 그들의努力이 舊來思想이며 그勢力에對抗하는 反立임을強調하고, 新文化運動의諸般趨勢에合致시켰다.

一般으로, 如上의 文藝혁신案들中엔民俗研究에從事한이들에게서 힘입은것이 많다. 社會에關한諸問題는 社會科學中에서도 特殊한典型들로 移動해갔다. 一九二六年에 國立北京大學의 民俗研究活動은 停止되었으나, 同事業은 一九三五年에 다시復活하였다. 이때엔이이 民俗學研究라는것이 文學의目的을爲해서達成해야할것이라든가, 또는社會개혁의 한手段이라든가하는討論이나躊躇는없게되었다. 文學의觀點이勝利한것이다. 當時中國의民族學的活動에對해서 남겨진記錄을參照한다면, 胡適이一九三六年에歌謠週刊의復刊에當해서執筆한것이었는데, 이렇게 적혀있다. —

「民謠를徵集하고 保存하는 그遠대한 目的은, 筆者는생각하거니와, 中國文藝界를 擴充시키고 新文藝의標本을益加시키는데있다. ……詩經三百篇의纂輯이남겨준深遠한影響은 그것으로써 中國

文學을攻磨했던것은勿論, 상기지금의우리들도亦是 中國古代史의淵藪으로써利用할수있는데있는것이다. 中國歌謠史에비취보전대, 新詩體恒常中國民衆에게서온것들이었다. 詩經의처음部分, 즉 國風은諸國의俗謠를包括한것이고, 둘째部分, 즉小雅의大部分은周室의抒情短詩를모은것인데, 이들은모다 當時의民謠들을採集한것들이다. 周體詩의九歌라는것은亦是 民衆의노래 부터始作된것이고, 歷代 樂府, 즉漢魏六朝代 宮廷樂府의歌詞, 또는宋代의抒情詩(詞), 元代雜劇이라는것들도亦是그러하여서, 그들은모다中國文藝史에서劃期的詩體를만들어주었던것이다. 이제 우리의新文學, 特히新詩는 또한새로운詩體가 必要케되었는데, 거기엔 두가지典型的源泉이있다. 하나는 外國文學에서發見해야할것이고, 또하나는 이나라의民謠에서發見해야할것이다. ……우리는믿거니와, 가장 아름다운民謠란同時에熟練된技術과 아름다운音調를 갖춘것이어서, 수월하고 귀여운말씨됨이實로逸作이라할것이다. 오늘날의新詩는 모름적이그들으로써模範을 심어야할것이다.」

우에서 봐온바, 中國의民俗學이起源케된 新文藝觀이며社會觀을 말하였는데, 애초에斯學의科學的研究의出發點이 不適合하였던것은明白한일이다. 批判되어야할第一要點은民俗의 調査研究를提唱하던이들중엔 한사람도 民俗學이라는것의性質이나原理 또는 研究方法에對해서全히 아지못하였었다는것이다. 그들의類同語鑑定이란事業을말하면 마치人種學을「人種機械學」의水準으로低下시켰다고非難을받고있는 어떤人種學教室에비유될일이다. 論, 누구나가 대뜸으로 바른길을 찾아간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歐羅巴의 예로보드라도亦是, 오늘에보는바와같은比較的 높은水準을보게되기까지其間에誤解와 偏在生을除去하기가數十年이必要하여왔던것이다. 그래서, 유스투스·뫼-서어(Justus Möser, 1792~94)가 獨逸民俗學을樹立한然後, 고르프리-드·헤르더어(Gottfried Herder) 그림兄弟(Jacob, Willhem) 그리고, 헨리·리-르(W.H. Rihel, 1823~97)들의發展過程을經過하여,從來엔單純히-地方的著名한 戰士言의叙述에 끝치던것이民俗學會의活動을보게되고, 아-돌프·슈파-머어(Adolf Spamer)教授에依한「獨逸民俗學誌」의刊行을이르게된것인데, 이렇도록民俗學이 그性質

과諸問題또는限界性에對한 正確한知識을가지고그 自身을科學的諸職務로盛裝하듯이 結構하여서成功하기까지 거이—一世紀半의長時日이걸렸든것이다.

中國의民俗學의境遇를볼진대, 諸問題들은그困難함에서나 複雜함에있어서저들獨逸國을 멀리凌駕한다. 中國의斯學에適用되였던西方의知識이나, 定義들은大概完全치못하거나 適合치못하기가쉬웁다. 第一로먼저基本問題에對한周倒苦心의研究, 또는中國民俗의調査에對한完備된方法論等은 活力을주는天惠가될것이다. 그러나우리는 이제로부터상기앞길이멀다. 우리에게될수있는일에 全力을다하는것은 우리의理想을明確케하고同時에中國精神의表明에 가차히하여주고, 그리고 적은數의研究者들에게잠지워진 課多한文獻의蒐集에 가차히하여주는것이되는것이다.

現在우리에게有利한立場에서 全問題를概觀할때, 斯學의初期에 그開拓者들이 저질는時代의誤謬를排除하고, 오로지우리는그間에獲得한幾個의結果를再認識하잖으면아니된다. 지나온歷史와諸傾向諸成果와失敗들을周密하게觀察할때, 過去中國이 가진民俗學의方法論的準備는 吾等機關志의目的으로보더라도 確實히有用하고 또한 必要한것이라할것이다.

二. 歌謠研究會

一九一八年二月에國立北京大學엔 歌謠徵集라는 것이開設되었다. 現中國民謠採集에關한當時의諸規定을보면다음과같다.

一. 本大學에서는 下記題名으로 두가지事業을適當한時期에刊行한다.

- A. 現代中國民謠의採集.
- B. 現代中國民謠의精選.

二. 民謠는 두가지方途로採集된다.

- A. 本大學의教授와職員, 學生들은名自의知力을다해서이에助力할것.
- B. 各地方政府는該地方의學校 또는 同政府管下의諸教育機關들에게調令해서 本大學을爲한採集을依頼할것.

三. 採集은 朝로부터現在에잇이는모든民謠를包含한다.

四. 下記와같은 노래들은採集된다.

- A. 風俗, 習慣, 歷史그리고各地方社會에 한民謠.
- B. 俚諺과같이 깊은意味를가진民謠.
- C. 멀리떠난兵士, 陰鄙, 想思하는少女, 愁歎하는 婦女의노래들은될수있는데로自然스런모양그대로하되, 淫猥하지않은것.
- D. 童謠, 豫言의歌詞, 歌詞自體엔別意味가없드라도 自然스런音調를가진것.

五. 길고 짧은歌詞들도함께採集된다.

六. 民謠의出所에對해서, 下記한分類에조차서選擇된다.

- A. 歌詞의作者는不明하나 特定한社會또는時期에自然的으로流布된것.
- B. 特定한作者의提供이라는것이 안歌詞일지라도 自然流布케된것.

七. 助力者들의注意—

- A. 方言과慣習의表現엔注釋을부칠것.
- B. 歌詞가優雅하다거나俗惡하다는 것엔不關하니, 言語를修正치말고野俗하게記錄된글자, 또는俗語表現을變形치말고, 불려져있는그데로採集할것.
- C. 字典에서볼수없는地方字音을記錄하되, 羅馬字또는音標文字로寫音키를希望한다.
- D. 한音의單語엔空白은남겨두되, 漢字를使用치말고羅馬字나標音記號로注音하고, 그意味를注解할것.
- E. 노래가불리워있거나, 또는傳播되고있는社會와時代를附記할것.
- F. 그地方의歷史, 地理또는風俗에關係한章句를說明할것.
- G. 萬一必要하면, 노래의音調를中國또는外國의記號로寫出할것.

이企劃을採擇되었다. 幾何數의民謠가徵集되, 劉復 周作人 沈尹默等諸教授들은 이것을出刊키로하여 編纂에着手하고, 錢玄同, 沈兼士兩教授는 民謠의方言을檢索하였다. 그해五月末부터 劉復教授의「歌謠選」이 北大日刊에 나타나기始作하고, 連載된歌謠數는 都合一百西十八數에達하였다.

(此項未完)

二. 歌謠研究會(承前)

一九二〇年겨울에, 歌謠研究會는 沈兼士, 周作人 兩教授를 主席으로 하여 組織이 되었다. 그러나, 同大學이 一九二一年봄에 財政難으로 數次校門을 닫게 되고, 周作人教授역시 病席의 이 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同研究會는 兩年間을 두고 實地的으로 거이 아모런 收獲을 못 얻고 말았다.

一九二二年에 歌謠研究會는, 北京大學에 新設된 同大學研究所國學門에 附隨하여 再組織이 되었다. 周作人教授는 다시 이 事業에 從事케 되고, 大學안에 歌謠研究室로 새로히 設備되었다. 約三千道되는 歌謠徵集이 一段落을 짓자 이것을 系統的으로 報告刊行키로 可決이 되었었는데, 거기엔 將次도 이 事業을 더욱 擴充시키고, 一般의 關心을 한층더 여기에 끄어 보려 하는 希望도 附托이 되어 있었다.

一九二二年十二月十七日, 北京大學節二十五週年 創立紀念日에 歌謠週刊의 第一號가 發行되었는데, 이때에 同誌의 編輯人은 周作人, 常惠, 沈兼士, 錢玄同諸教授들이다. 初年의 週刊은 單獨刊行物이 아니고 단지 北大日刊에 附錄이 되어 月曜日마다 添加되는 것이므로, 分賣도 不可하였다. 單獨刊行이 된 것은 그이듬해 九月廿三日附第廿五號부터 서이다.

이러는 동안에 中國의 新文化運動은 그 最高潮에 達하여 있었다. 歌謠의 採集과 研究에 對한 熱狂의 情熱은 젊은 知識人들에게 한 流行이 되어 있었으므로, 研究室에 報告되어 오는 全國의 歌謠는 날마다 끊임없이 없었을만큼 盛況을 이루고 있어서, 一九二二年十二月一日以來로 一九二五年六月末日까지, 研究室에서는 一萬三千三百三十九首의 歌謠를 全國各土로부터 報告를 받고 있을 것이었다. 다음 表는 그 內容 地方別이다.

河北 三六九二. 山東 一〇三七. 河南 九三三. 江蘇 一三七五. 安徽 三八三.
浙江 三〇八. 湖南 四〇四.
甘肅 四五. 四用 三三〇. 雲南 二三八五. 廣質 六〇七. 福建 五五四.
江質 八〇. 湖北 五六五. 陝西 二四八.
新 〇. 廣東 六六一. 貴州 八三. 熱河 〇.

第五十號로부터 同誌엔 民俗에 關한 論文이 눈에 보일만큼 增加되어 온 것은 注意할 일이다. 이 變化는 顯

著하여져서 歌謠週刊本然의 趣意와 의 사이의 矜盾이 發見되자 國學研究所에선 歌謠週刊을 廢刊하고 그 代身에 보다 넓은 內容을 가진 機關紙를 내여서 새로운 出發을 하기로 決定이 되었다. 短命한 歌謠週刊의 全歷史, 그리고 그가 齎來한 諸成果를 約言하면 다음과 같다. — 週刊이 繼續된 二個年半間, 곧 一九二二年十二月十七日로부터 一九二五年六月二十八日에 이르기까지, 九十七冊이 刊行되었고, 二千二百二十六首의 民謠가 揭載되었었다는 것이다.

歌謠週刊이 企劃하든 것으로 成果를 얻었다 할만한 것을 評論한다면, 우리는 먼저 歌謠의 比較研究에 손을 꼽지 않으면 안 된다. 週刊의 第一號에서, 常惠가 그의 「寄稿者에게 주는 說明」中에서 「隔着竹簾 看見地」(나는 그女子를 竹簾 건너 보았노라)를 노래한 여러 가지 다른 文例를 引用比較한 후 그는 다음과 같은 結果를 내었다. 「한 노래는 다시 無數한 수효의 노래들로 發展해서 中國全土에 流布되어 간다. 그러나 같은 한 노래는 地方마다 一齊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近隣한 地域에서 서로 다른 것이 있다. 이것은 充分히 研究해 볼 價値의 問題이다」라고. 可謂이것은 民謠比較研究의 先鞭을 잡은 것이라 볼만한 것인데, 胡適역시 때를 가지하여 그의 「民謠比較研究의 一例」에서 同一한 「모티-브」를 가진 노래가 北에서 南으로 江蘇에서 四川으로 傳播되어 간 자취를 볼 수 있는데, 地方마다 그 地方의 鄉土色이 附加되어서, 어떤 때는 전혀 다른 語辭로 改裝되는 例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는 여기서도 「隔着簾 看見地」라는 句節을 들어서 民謠比較研究의 實例를 證示하였다.

民謠의 比較研究와 並行하여 그 社會研究에 關한 것이 적지 않은데, 民謠에 反影된 家族이나 婦女問題를 取扱한 論文이 多數 있어서 우리의 注意를 끄는다. 劉經菴은 「民謠와 婦女」라는 論稿에서 河南에 불리고 있는 노래 三百首를 分析하여 다음과 같이 類別하였다.

- 一. 少女의 哀愁
- 二. 少婦의 愁歎
- 三. 老婦의 愁歎
- 四. 不幸한 結婚
- 五. 夫婦間의 間隙.

또한 그에게는 社會問題에 關聯된 論考가 많아서, 「民謠에서 孀姑母와 繼母」 「民謠에 나타난 中國婦女의 地位」 등이 있고, 다른 著者로 「民謠에 나타난 結

婚觀」이라든지 「結婚을 노래한雲南民謠」等等이었다.

序論에서도 말한바있었으나, 民謠에對한文學의 關心이 무엇보다重要하게 보아와모든것은勿論인데, 方言의採集에對한編輯者들의苦心은그렇게 좋은成績을 얻지 못하고말았다. 寄稿者들을當惑케한問題는轉寫의困難함에있었다. 이에對하여선, 一九二四年一月三十日의大會에, 方言調査의協力을 얻어, 特別表音字를制定키로結議하고, 이어서創定하였으나地方의寄稿者들은 이것을活用할줄을몰랐고, 從來의表音記號를利用하는이가 많았다.

歌謠週刊이廢刊이 되고, 國立北京大學研究所國學門週刊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第一號가發行되기는一九二五年十月十四日의 일이다. 이것은同大學의數三學術研究團體, 곧歌謠研究會, 風俗調査會, 方言調査會 考古學會 등의 綜合發表機關으로써誕한것이되되, 그實인즉民謠에關係한것으로크침을 따름이고그나 마이듬해八月에 第廿四號를마지막으로停滯되고말았다얼마되지않아서, 이週刊은「國立北京大學研究所國學門月刊」으로改名되어出刊이繼續되었으나, 이것亦是第八號에서끄치고말았다. 以上, 研究所國學門週刊과月刊에 실린民謠는모다五十四首를計上했고, 그밖에臺靜農이安徽北部淮南地方에서採取한長編戀愛歌와, 章文煥이浙江鄞縣地方에서얻은數三民謠가있다.

歌謠研究所에서는일찍히 다음의 세가지叢書—歌謠叢書, 歌謠小叢書를發刊키로豫定이었는데, 단지세卷만이發表됐을따름이다.

吳歌集(歌謠叢書第一卷)顧頡剛選

看貝她(歌謠小叢書第一卷)董作賓選

孟姜女說話(民話叢書第一卷)顧頡剛選

一九二五年五月三十日, 北京在住諸學人들은이 날에突發한政變의 風波를입고北京을떠난이가 많아서, 民謠研究事業도自然解消가되고말았다.

三. 風俗調査會

民謠徵集이始作된지四年後에, 이와併行하여風俗調査運動이開始되었다. 一九二三年五月十四일에同準備會가열렸고, 여기서張鏡生教授作成으로提起된風俗調査表라는것이檢討되었다. 同表는 그細部에若干의改正이 있을따름으로 大概承認한바되었다. 그리고, 北京一帶를비롯한研究資料의蒐集

이始作되었고, 새로히民俗博物館設置件이決議되었다. 이博物館設置案中에서가장主重된問題는第三條即風俗調條目은다음과같다. (同表는國學季刊第一卷第三號에掲載되었고, 또大端한長文이기에여기는省略한다. 譯者).

이調査表는三千部가印刷 되어會員과諸同好者그리고各省의教育司와 地方의教育機關에分配하여그協力이依賴되었으나, 結果의成績은良好하지못했다. 失敗한第一原因은不完全한調査表에있는데, 設問된條目條目이定義기에不明確한點이 많아서, 하나를完全히解答하면이에附隨하여서說明되어야한다른問題들이必要케하였을뿐만아니라, 調査表自體가民俗에關한것이라기보다는社會問題에關한것이大半이었던탓도된다. 그이듬해五月까지, 都合四十一通의回答이報告되었을뿐인데, 그중에完全한것은歌謠週刊과北大日刊에掲載가되었다.

行別	盤	船	摘	漁	想	童	山	氏	種	省
計	鼓	鼓	夫	夫	天	思	語	話	話	別
101						29	72			北河
26						17	9			東山
47						20	27			南河
3							3			西山
49		1		3		12	33			蘇江
52			10			4	18	20		徽安
9							8	1		西江
47						2	1			建福
77							11			江浙
58						19	2	7	30	南湖
17										北湖
4										西陝
86		11				15	47			川西
68	1						18	43		東廣
23			2					21		西廣
8								5		南廣
58							5	49		州黃
73							16			北來
12					12					海香
7										關哈察
825	1	11	1	12	3	82	191	134	403	介

兩他博物館設置를 目的코準備된 民俗研究資料의 蒐集은 一九二四年一月에 먼저 新年風俗에 關한 資料만을 整理하여 이것을 展覽資料로 하여 開館하였는데, 그후에 새로히 進歩된 事業이란 別로 보지 못했고, 風俗調查會라는 것도 언제 일지 모르게 存在가 없게 되고 말았다.

四. 歌謠研究會의 復舊

一九三五年에 國立北京大學안의 國學研究所는 文科研究所라 改稱되고, 함께 歌謠研究會도 一段의 新生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 그 委員을 보면 胡適, 周作人, 羅常培, 魏建功, 顧頡剛 常惠諸 教授인데, 다음 세 가지의 改革이 合議되었다.

- 一. 歌謠週刊의 再刊
- 二. 新國風叢書의 刊行(各地方에서 徵集된 歌謠集)
- 三. 風謠學會의 單獨組織

第一條의 革新案의 徐芳과 李素英 兩女士를 編輯主任으로 하여 一九三六年四月一日에 實現을 보았는데, 已往에 刊行된 九十七冊의 歌謠週刊은 모다 이것을 第一卷이라 이름 붙이고, 이제 再生된 歌謠週刊은 第二卷으로 始作했다. 民謠의 採集은 다시 繼續이 되어서 各省別로 採集되었다.

內蒙古九四一. 東北區 四. 不門 一第二卷으로 發行된 週刊은 모다 四十冊이었고, 이어서 第三卷은 一九三七年四月三日에 第一號를 내었다. 第七號가 發行되면서 마침 究發된 支那事變으로 同誌의 繼續은 斷念되었다. 第二卷과 第三卷에 收錄된 民謠는 都合 八百二十五首였는데, 이것을 그 노래의 種類別과 地方別로 나눠서 圖表를 내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民謠와 新諸問題에 對해서, 胡適이 「歌謠週刊復刊에 際한 導言」中에, 中國의 諸詩體들은 모다 民衆의 노래에서 起源한 것이라고, 이에 關한 數 많은 實例를 들어 說破한 것은 重要한 意味를 가진 것이었다. 魏建功이, 七言詩를 山歌에 起源한 것이라고 하여서, 山歌를 그 細部에 들어 分析하였고(週刊卷二, 五號), 胡適이 七言形式으로 된 民謠가 상국 中國의 西南地方— 廣西, 廣東, 雲南, 四用, 福建越奧地方, 江蘇蘇州地方 등의 各地에서 불려져 있는 것을 다시 力說指摘하여 七言詩의 起源에 對해서, 定說을 曄然이 있다. 山歌에 關한 興味 깊은 研究는 이밖에 도 容肇祖의 「山歌의 起源」(回第三號), 孟森의 「山歌의 史料」(同第十號) 등이 있고 그리고 申壽生은 그의 山歌研究에서(同第冊二號), 貴州地方의 山歌를 分類하여, (一) 號子(일관의 설소리), (二) 風流歌(變愛歌) (三) 盤歌(兩者가 서로 묻고 對答하는 形式으로 된 노래), (四) 辱說, (五) 乞蚤歌(軍歌)의 다섯 가지로 나뉘는 것도 注意를 끄는 바이다.

如上의 山歌研究와 併行하여 「吳歌」에 關한 一羣의 研究도 있어서 는 아니된다. 顧頡剛이 그의 「吳歌小史」(同第三號)에서 吳歌는 詩經의 時代보다도 오랜 時代의 것이고, 그것이 詩經에 輯錄되어 있지 않은 것은 曄然 當時 中國의 中心文化가 이 地方(吳)에 까지 達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나, 戰國策의 吳吟에 보인 用辭라든지, 招魂의 吳歎에서 보는 用語, 또는 在思吳都賦等等은 모다 吳歌에 屬한 것이 라는 것을 指摘하여 있다 古吳歌의 어떤 것은 現存樂府에 保存되어 있는 것이 있고, 唐宋의 詩人이 吳歌를 模倣해 지은 때는 近時에 徵集된 吳歌中에서 그 原形을 發見되는 것이 있다 한다.